

돈 보다 개그콘서트가 두려운 남자, 최치환 경영지원팀장

고객홍보팀



2015년 말, 우수지원(종합 부문) 시상식, 2월호와 4월호에서 앞서 만난 대전충남지원 박해천 이력팀장, 서울지원 김영신 팀장과 함께 수상자로 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. 최치환 경영지원팀장이다.

최치환 팀장은 2014년 3월 1일자로 경영지원팀에 부임해 와 경영지원팀장 2년 3개월 여 차다. 그런데 이 사람, 계속 이 옷을 입어온 것 마냥 한 몸이 되어 있다. 1994년 3월 입사했으니 평가사로서 근무한 시간이 경영지원팀에 근무한 시간의 거의 10배에 달하는데,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옷이 마치 맞춤옷 같다.

“평가사와 경영지원팀의 업무는 전혀 다르다. 평가사는 법의 목적성대로 개량 촉진이나 지표 마련 등 우리 축산물의 안전과 가치 제고를 위해 일한다. 내가 평가한 대로 유통되고, 가격도 결정된다.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. 그리고 둘 중 당연히 오래 일을 해왔고, 익숙한 쪽은 평가사다.”

그는 축산학도다. 오랜 시간 축산인으로서 살아왔다. 그러다가 감사를 하며 본원의 일을 좀 익힌 다음 경영지원팀 발령을 받게 됐다.

그런데 ‘익숙해졌다’는 생각이 자만이었던가, 경영지원팀에 처음 부임해보니 이견 또 다른 얘기였다. 같은 알아도 업무 세부까지 알 수 없었고, 이후 나름대로 회계 공부도 했지만 직접적인 실무를 안 하다 보니 실무진과 이견이 있을 때도 있었다. 기관의 예산을 쥐고 있는 만큼 때로 다른 팀이나 지원과의 부딪힘도 피할 수 없었다.

“일요일 오후면 늘 ‘월요일에 별일이 없기를...’ 하면서 빈다. 그런데 막상 월요일이 되면 늘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하루가 훌쩍 가기 일쑤다.”

직장인들이 ‘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’라는 가사를 가슴 치며 듣게 하는 게 일요일 저녁에 하는 KBS 개그콘서트 라더니 기관의 돈 줄을 쥐고 있다는 최치환 경영지원팀장도 다를 바가 없었다. 오히려 워낙에 부침이 많은 자리니 간절함이 크면 더 컸을까 작지는 않아 보였다.

특히, 지난 2015년은 그 ‘부침’의 극한을 체험했던 한 해로 연말 수상의 의미가 깊었다. 그해 최치환 팀장은 기관의 세종시 이전 준비를 위해 동부서주하며 ‘NO’를 ‘YES’로 만들고자 빈 말이 아니라 진짜 ‘계란으로

바위치기를 했었다.

“이 자리에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전준비 작업을 했던 것이다. 특히, 이전기관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. 생소한 일이다 보니 처음에는 행복청하고 협의 후 승인 받았다 여겼다. 그런데 특별분양이 될 줄 알았었는데, 분양 받다 보니 세금을 다 내라더라.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는데, 그걸 몰랐던 거다.”

그는 등급판정 한 계란을 선물로 들고 여기저기 찾아 다니며 협의했다. 승인 받기까지 국회부터 서울/세종청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이하 행복청), 세종시청 등 안 다닌 곳 없이 다 쫓아다녔다. 국토부 이전추진단장까지도 만났었는데, 막상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갔더니 “이미 집 짓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”며 제동이 걸렸다. 축산위기 상황시 정부와 유기적으로 신속히 협력해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는 됐지만 추진 절차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.

“위원들이 다 장·차관급인데 그들이 반론을 내니 식은땀이 쫓 나더라. 논의 끝에 위원장이 ‘원칙대로면 안 되겠지만 형성성 차원에서 특별케이스로 동의해주자’는 의견을 내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해주어 결국 승인을 받게

됐다. 뛰어다니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전기관 승인을 받았고, 덕분에 직원들은 특별분양 대상으로 혜택도 받게 돼 고생한 보람이 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 사람들이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. 조만간 또 서울에 가서 보좌관들을 만나야 한다.”

그런 그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“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”이다.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그를 다 충족시키기 어렵고, 회계나 계약 전문가가 없다보니 그에 따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. 게다가 감사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일할 때면 ‘이전 감사 확인사항이 아닌가’ 늘 고민하게 되고, 대응방안까지 생각하며 일을 하게 되고는 한다.

“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지원하고 청사도 다 채워놓고 싶지만, 도리가 없다. 지원사무실 구축만 해도 마음 같아서는 다 땅도 조금씩은 달린 자체 건물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이 크다. 오죽하면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‘금액 떨어져라’ 기도하며 지켜보기도 했는데, 힘들더라. 그리고 직접 일해 보면 알겠지만, 우리팀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. 1년 예산을 다 밀어내야 하고 노무나 직원 복리후생, 경영공시, 회계 결산 등을 다 해야 한다. 지금은 인력풀을 만들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를 키우는 게 숙원 과제다.” **동음정식**



최치환 팀장을 이야기하는 ‘한 컷’



실무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, 그리고 팀 직원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팀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그는 팀 회의나, 직원들과의 미팅, 식사자리 등을 자주 갖는다.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주 소통하며 벽을 없애려 노력한다. 2016년 5월의 어느 날, 기획경영본부 미팅룸.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기를 주저 하지 않는, 그의 일상 단편이다.